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 유형 -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1학년 온라인 학습상황을 중심으로 -*

정 은 화¹⁾

이 강 이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유형 결정에 있어서 교사, 아버지가 영향요인이 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잠재프로파일 분석,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SPSS 25.0과 Mplus 8.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안정형, 두 변수 모두 높은 노력형, 두 변수의 수준이 중간인 보통형,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여행동이 낮은 무기력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안정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여행동이 낮은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잠재계층유형별로 예측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교사, 아버지와 같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자기주도학습,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초등학교 1학년

* 본 논문은 정은화의 석사학위논문(2021)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학습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특히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아동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발달 과업 달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또래, 교사와의 충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교사의 직접적인 대면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수행되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신용섭, 2020).

이러한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점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교육 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서보미, 2020). 아동 간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로 가정 환경의 차이를 들 수 있다(서보미, 2020). 이는 학교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지원에서 가정의 역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요즘과 같이 학습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 학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어머니의 교육지원으로서 학습관여행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학습관여행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김종덕, 2001).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더불어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아동이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학년 아동이 원활하게 가정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자녀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서의 학습관여행동은 아동이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학습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다(김홍석, 심혜숙, 2009).

한편, 양육과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은 양육스트레스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양진희, 2016; 윤현수, 오경자, 2010).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위축 등과 같은 상황은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아동을 기관에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비취업모의 경우 하루 종일 아동과 함께 지내는 등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기 쉽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결국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으로서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형태의 학습관여행

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반드시 낮은 학습관여행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성취를 부모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육열이 높은 편인데(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2020), 이러한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도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아도 자녀의 학업 과정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낮은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가 관찰 가능한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사회적 지원, 육아에 있어서의 부부양육협력, 양육 기술 능숙도, 인지 전략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Abidin, 199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둘러싼 환경 안에서 어머니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중심 연구법(person-centered analysis)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어머니 집단 내에 양육 및 교육지원 행동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의 주요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을 투입하여, 두 변인의 높고 낮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 집단을 나누어 보고, 그 집단에 속한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습 상황에 처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 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어떤 양상을 보이

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과 교육지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요구되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증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사회적 지원으로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교사가 학교에서 대면으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때에 교사가 어머니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아이의 참여 독려를 요청하는 등의 소통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교의 인적 자원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확대된 의미의 가족이자 아동을 지원하는 공동체로서 기능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의 기술을 높일 수 있다(이미자, 문혁준, 2008). 따라서 실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 있어서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결정짓는 영향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느낄수록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는데(진미정 등, 2020),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배우자가 협력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양육 참여를 하는지의 정도는 부부 간의 정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노성향, 2014; 손수민, 2012; 이정순, 2003), 어머니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예측하는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추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통제 변인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자녀의 적응적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의 발생을 억제하지만, 까다로운 기질, 부정적 정서 등의 다루기 힘든 기질의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육아에 대한 부적응 행동을 하도록 하기 쉽다는 선행연구(최은아, 2018; Suchman & Luthar, 2001), 취업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상황으로 인해 전업모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정은화 등, 2020), 다자녀 부모의 경우 자녀 각자의 요구도가 다양하므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이혜경, 2011)를 고려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의 유형을 규명하고, 그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각각의 유형별로 영향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상황에 처하게 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요인의 특성을 밝히고, 사회적 지원으로서 교사와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 유형의 영향 요인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온라인(맘카페,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자의 수는 모두 408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명, 중복으로 참여한 응답 4명, 결측치가 있는 응답 3명을 제외하고 총 40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아동의 성별	남자	212	(53.0)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7.0)
	여자	188	(47.0)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71	(17.8)
자녀의 수	외동	133	(33.3)		4년제 대학교 졸업	248	(62.0)
	두 명	235	(58.8)		대학원 재학 이상	53	(13.3)
	세 명	31	(7.8)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114	(28.5)
	네 명 이상	1	(0.3)		사무관리직	179	(44.8)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8.5)		생산노동직	28	(7.0)
어머니 학력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109	(27.3)		판매서비스	9	(2.3)
	4년제 대학교 졸업	229	(57.3)		자영업	70	(17.5)
	대학원 재학 이상	28	(7.0)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7	(4.3)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직	40	(10.0)		300~399만 원	69	(17.3)
	사무관리직	103	(25.8)		400~499만 원	89	(22.3)
	생산노동직	4	(1.0)		500~599만 원	111	(27.8)
	판매서비스	10	(2.5)		600만 원 이상	114	(28.5)
	자영업	18	(4.5)				
	전업주부	225	(56.3)				

성별은 남아 212명(53.0%), 여아 188명(47.0%) 이었고, 자녀의 수는 두 명인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의 경우 전업 주부가 56.3%로 과반수였다. 아버지의 학력 역시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관리직(44.8%), 전문기술직(28.5%), 자영업(17.5%) 순이다. 가구 소득은 600만 원 이상(28.5%), 500~599만 원(27.8%), 400~499만 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모든 측정도구는 아동학 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을 묻는 설문지는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이 개발, 김경순(2014)이 재구성한 척도를 정다희(2020)가 초등학생 저학년에 맞게 수정한 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가정학습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4문항으로 2개의 하위 요인(학습 계획, 학습 실행)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

주도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학습 계획 .84, 학습 실행 .84로 양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김기현, 강희경(1997)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최성자(2019)가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하위 요인과 취업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대에 맞게 일부 문항의 어휘를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도래한 이후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들을 '코로나 이후 - 해졌다'와 같은 서술로 변경하였다. 21문항으로 2개 하위 요인(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을 측정하며,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86, 부모 역할 부담감 .90으로 양호하였다.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

아동의 온라인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어머니의 학습관여행동은 이정실(2011)의 부모의 학습관여에서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 하위 척도와 권재기(2001)의 교육적 기대 척도 하위 요인 중 '가정학습활동'을 합쳐서 사용한 전은옥(2017)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가정학습활동' 하위 요인에 Nikken과 Jansz(2014)가 개발한 '부모의 인터넷 사용지도' 척

도를 김은지(2017)가 유아와 스마트미디어에 맞게 수정·변안한 것을 추가하였고, 이후 일부 문항에 '온라인 학습을 위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36문항, 4개 하위 요인이며,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86, 존중과 사랑 .85, 온라인 가정학습활동 지원 .90, 학업성과압력 .88로 양호하였다.

교사와의 의사소통

NAEYC(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교사와 가족 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장지원(2005)이 작성한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평정척도를 초등학교 1학년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고, 온라인 가정학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준다.'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 추가하였다. 모두 8문항이며,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양호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홍성례(1995)의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을 측정하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발췌·수정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명명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공부'를 '온라인 학습'으로 수정하였다. 총 6문항이며,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양호하였다.

아동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Buss와 Plomin(1984)의 아동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를 노명실(2017)이 번안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 3개 하위 요인(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평정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 자극에 의하여 빨리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 정서가 높고(정서성),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며(활동성),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잘 어울리는 것(사회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정서성 .81, 활동성 .74, 사회성 .78로 양호하였다.

3.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모든 연구절차는 저자들이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2010/002-006). 예비 조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2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 혹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항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IRB 승인이 나온 이후, 2020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

학년의 경우 2020년 5월 27일부터 등교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계수를 산출하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도출된 잠재 계층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잠재 계층의 영향 요인(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아동의 기질, 소득 수준,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수 등)를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Mplus 8.0을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에서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정보지수, 분류의 질, 분류비율, 모형비교 검증을 사용하였다. 정보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Akaike, 1987),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chwarz, 1978), aBIC (adjusted BIC; Sclove, 1987)를 사용하였는데, 그 값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 값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0에서 1 사이의 값 중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하며 .8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Clark, 2010). 추가로 모형 비교 검증은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다. 두 검증은 잠재계층모형을 잠재계층의 수가 k 개 일 때와 이보다 하나 적은 $k-1$ 개일 때를 p 값의 유의도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으로,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잠재계층모형이 $k-1$ 개의 잠재계층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각 잠재계층의 비율을 고려하였는데, 전체 표본 대비 모든 계층의 최소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Jung & Wickrama, 2008).

III. 결과 및 해석

1.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 유형(연구문제 1)

잠재 집단의 수 결정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2개 집단부터 5개 집단까지 계층의 수를 증가시켜 모형을 검증하였고, 정보 지수(AIC, BIC, aBIC), 분류의 질(Entropy), 분류비율, 모형 비교 검증(LMR-LRT, BLRT)을 통계적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2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때, 정보 지수

표 2. 잠재 집단의 수 결정 요소

분류 기준		잠재 집단의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4656.552	4424.353	4239.204	4148.563
	BIC	4732.389	4528.131	4370.922	4308.221
	aBIC	4672.101	4445.632	4266.211	4181.299
분류의 질	Entropy	.712	.775	.828	.829
분류율 (%)	1	40.500	45.254	16.000	8.000
	2	59.500	17.747	7.750	47.500
	3		36.998	25.500	9.750
	4			50.750	17.750
	5				17.000
모형 비교 검증		계층1 vs 계층2	계층2 vs 계층3	계층3 vs 계층4	계층4 vs 계층5
LMR-LRT p value		.529	.068	.032	.085
BLRT p value		.000	.000	.000	.000

의 경우 유형의 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BIC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였다.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경우 집단 4개부터 .8 이상의 값을 나타내며, 4개와 5개의 차이는 거의 없게 나타났다. 모형 비교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 < .001$), LMR-LRT는 계층이 4개인 경우에만 계층이 3개인 경우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p < .05$). 마지막으로 집단 내 분류율을 고려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모든 계층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준을 포함하여 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의 유형은 4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잠재 집단의 구분

최종적으로 결정된 4개의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 유형은 표 3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집단($N = 64$)으로 양육스트

레스의 평균은 2.4~3.1점으로 대체적으로 낮은 반면, 학습관여행동은 학업 성과압력을 제외하고는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낮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학습관여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판단하여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25.5%를 차지하는 집단($N = 102$)으로, 양육스트레스와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한 학습관여 하위요인 모두 전반적으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업 성과 압력도 3.6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학습관여행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집단으로 판단하여 노력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전체 중 50.75%($N =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는 안정형에 비하여 높기는 하나 3점 중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학습관여 행동도 3점 중반대로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통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의 7.75%($N = 31$)에 해당하는데 스트레스가 4.4점 이상으로 대체로 높았고, 다른 집단들과 달리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 부

표 3. 결정된 잠재 집단의 유형

	집단 구분				전체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	
<i>n</i> 명 (비율%)	64 (16.0)	102 (25.5)	203 (50.75)	31 (7.75)	400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07	4.30	3.70	4.42	3.83
부모 역할 부담감	2.42	4.07	3.48	4.44	3.56
평균점수					
조언 및 정보제공	4.22	4.24	3.51	2.79	3.75
존중과 사랑	4.58	4.33	3.78	3.11	3.99
온라인 가정학습 활동 지원	4.27	4.31	3.59	2.75	3.81
학업 성과압력	2.29	3.62	2.91	3.13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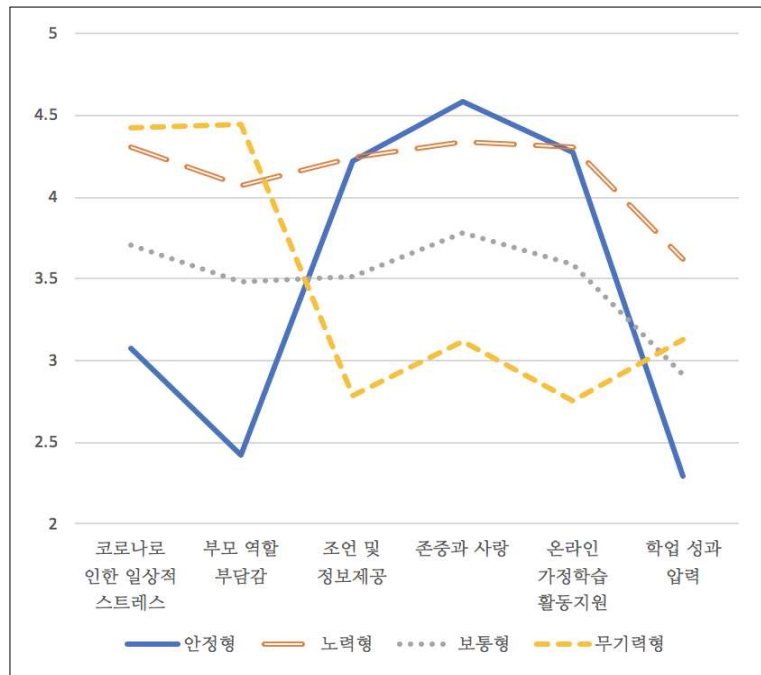


그림 1. 결정된 잠재 집단의 유형

담감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더 높았다. 학습관여행동의 경우 2점 중반에서 3점 초반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학습관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무기력형으로 명명하였다. 분류된 잠재 집단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2.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 유형별 자기주도학습의 차이(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고, 분산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75, p < .001$), 안정형에서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력형과 보통형의 경우 평균값은 노력형이 보통형보다 높았으나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같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한 애정적인 학습관여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학습관여행동이 낮은 경우는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더라도 학습관여행동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여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잠재계층 유형 간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집단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F (사후검증결과)
자기주도학습	안정형 a	3.81 (.69)	42.75*** (a>b, c>d)
	노력형 b	3.43 (.59)	
	보통형 c	3.23 (.61)	
	무기력형 d	2.30 (.74)	

*** $p < .001$.

3.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의 양육(양육스트레스) 및 교육지원(학습관여행동) 유형의 영향 요인(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아동 기질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네 개의 잠재계층유형에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인과 예측요인 모두를 투입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Nagelkerke R^2 값은 0.33으로, -2로그 우도값은 804.118($\chi^2 = 143.15$, $p < .001$)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제시되었듯이, 노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고, 노력형에 비해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영향 요인은 아동의 정서성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54% 증가했으며,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이 한 단계 증가하여 감정기록이 심할수록 안정형이 될 확률이 67% 감소하였다.

보통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

버지의 양육참여였고,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보통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121%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보통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96% 증가하였다. 반면, 아동의 정서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보통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47% 감소하였다.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을 촉진하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무기력형에 비해 안정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무기력형에 비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한 단계 증가하여 원활할수록 31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한 단계 증가하여 높을수록 450%,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210% 높았으며, 아동의 정서성이 한 단계 증가하여 높을수록 70%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여행동도 높은 유형인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을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보통형과 비교하여 노력형에 속할

표 5. 잠재계층 유형(안정형)의 영향 요인

준거집단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절편	-1.24 (1.92)		-6.36 (1.75)		-9.52 (2.78)	
교사와의 의사소통	.43 (.21)*	1.54	.79 (.19)***	2.21	1.42 (.32)***	4.12
아버지의 양육참여	.32 (.24)	1.38	.67 (.22)**	1.96	1.70 (.33)***	5.50
기질(정서성)	-1.10 (.22)***	.33	-.63 (.20)**	.53	-1.17 (.32)***	.31
기질(활동성)	.33 (.33)	1.40	.17 (.30)	1.19	.54 (.48)	1.72
기질(사회성)	.13 (.40)	1.14	.42 (.37)	1.52	.89 (.61)	2.43
가구 소득	-.17 (.16)	.84	-.05 (.15)	.95	-.17 (.24)	.85
자녀 수	.13 (.29)	1.13	-.11 (.27)	.89	-.78 (.44)	.46
모의 전업	.02 (.37)	1.02	.05 (.34)	1.05	1.13 (.55)*	3.10

주. Nagelkerke $R^2 = 0.33$, -2로그 우도값 = 804.118 ($\chi^2 = 143.15$,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의 정서성이었다. 보통형이 노력형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각각 42%, 44%의 확률로 보통형에 비해 학습관여를 중시하는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정서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보통형에 비해 노력형에 속할 확률이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무기력형에 비해

표 6. 잠재계층 유형(노력형, 보통형)의 영향 요인

	노력형				보통형	
준거집단	보통형		무기력형		무기력형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계수 (표준오차)	Exp(B)
절편	-5.12 (1.38)		-8.28 (2.52)		-3.16 (2.31)	
교사와의 의사소통	.36 (.16)*	1.44	.98 (.29)***	2.68	.62 (.27)*	1.86
아버지의 양육참여	.35 (.16)*	1.42	1.38 (.29)***	3.99	1.03 (.26)***	2.81
기질(정서성)	.47 (.16)**	1.59	-.08 (.29)	.93	-.54 (.27)*	.58
기질(활동성)	-.16 (.23)	.85	.21 (.43)	1.23	.37 (.40)	1.45
기질(사회성)	.29 (.29)	1.34	.76 (.56)	2.13	.47 (.52)	1.60
가구 소득	.12 (.12)	1.13	.01 (.22)	1.01	-.11 (.20)	.90
자녀 수	-.24 (.22)	.79	-.91 (.41)*	.40	-.67 (.38)	.51
모의 전업	.03 (.27)	1.03	1.11 (.51)*	3.03	1.08 (.47)*	2.95

주. Nagelkerke $R^2 = 0.33$, -2로그 우도값 = 804.118 ($\chi^2 = 143.15$,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의사소통은 한 단계 증가하면 168%,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한 단계 증가할수록 299%의 확률로 어머니가 학습관여를 하지 않는 무기력형에 비해 학습관여를 하는 노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노력형에 속할 확률은 어머니가 전

업주부인 경우에 203% 증가하였고, 자녀의 수가 한 명 많아질수록 60% 감소하였다.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영향 요인은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전업주부 여부였고,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86%, 아버지

의 양육참여는 181%의 확률로 무기력형에 비해 보통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95%나 높았다. 반면, 아동의 정서성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보통형에 속할 확률이 42% 감소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등교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동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발달을 위한 조력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은 안정형,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의 네 개로 구분된다. 안정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경쟁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업 성과 압력을 제외한 조언, 존중, 지원의 의미의 학습관여행동은 높았다. 반대로 무기력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자녀의 학습에 애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습관여행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형태를 보였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 모두 안정형과 무기력형의 중간의 점수를 보이는 보통형이 있었고, 역설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여행동 역시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형이 있었다. 노력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원, 부부 간 협력, 양육 기술 능숙도, 인지 전략 등에 따라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Abidin, 1992). 또한 노력형과 같은 양상은 자녀의 높은 성취를 위해 부모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녀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깊다(정은화 등, 2020). 이러한 노력형 어머니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에 더해 학습관여행동이라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어머니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어머니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의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습관여행동이 높은 안정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기력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원격수업에 있어서 부모의 인식, 태도가 학생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보람, 이강이, 2021)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되며, 정부, 학교 차원에서 가정에 어떻게 학습을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관여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노력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기력형에 비하여 아동이 높은 자기주도학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관여행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에 차이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충분한 학습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 방식을 지지하는 경우 아동이 수월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소운, 최성우, 2015; 김연수, 이종한, 한영숙, 2008; 노대근, 2014)가 노력형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도 자녀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환경이 저소득, 저학력인 비율이 높은 무기력형의 경우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사회적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이상구, 2020). 온라인 비대면 수업 참여에 있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에 대해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 요인이 되는 바, 교사 및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먼저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과 발달, 교육 내용, 부모의 경험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학

습관여행동이 높은 유형에 속하게 되어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둘 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하여도, 어머니가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여 자녀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학습에 관여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다.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유형인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아버지가 높은 양육참여를 보이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학습관여행동을 보일 노력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습관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노성향, 2014; 손수민, 2012; 손영빈, 윤기영, 2011; 이정순, 2003).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모 교육과 같은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 정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서 적극적인 학습관여행동을 보이는 노력형과 안정형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만으로는 노력형 어머니가 보이는 스트레스가 감소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부부 공동의 양육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 이외의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지만 학습관여행동을 보이

고자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협력 외에도 이웃,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정은화 등, 2020; 최은아, 2018; Suchman & Luthar, 2001)에 근거하여 통제 변인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아동의 기질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의 정서성이 높아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수록 노력형, 보통형,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또한 무기력형과 비교하여 어머니가 전업모일수록 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노력형과 무기력형을 비교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학습관여행동을 보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들 통제변인을 추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따른 잠재계층유형을 살펴보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어머니 역할을 위한 지원에 대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일부 제한점도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어머니가 응답한 것이다. 즉, 모든 응답이 어머니가 지각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 개인의 편향이 포함될 수도 있는 등의 자기 보고식 설문법의 한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연구결

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제한점으로,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 시점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횡단 연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Abidin, 1992; Belsky, 1984; Suchman & Luthar, 2001)을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수행하고 해석하였지만, 오히려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이 낮아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로 설계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학습관여행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아동이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의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의 발달에 있어서 학령기 초입인 초등학교 1학년 연령에 주목하였다. 이제까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청소년,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높은 연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김순희, 2012; 김연수 등, 2008; 이채신, 2009; 정주영, 2017). 이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임(유현숙 등, 2002)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동들은 이전에는 학교의 대면학습을 통해 경험했던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을 가정에서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전대미문의 초등학교 입학 경험을 하게 된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 요인,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에 대해 살펴본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발달에 있어서 학습 조력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유형을 밝혔다.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습 조력자로서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야 했다. 이에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관련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의 유형에 대한 영향 요인을 밝힘으로써, 교사와 아버지와 같은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다. 어머니를 둘러싼 양육 환경에 있어서 인적 자원으로서 교사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자녀양육과 학습, 학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실천적인 함의를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재기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과외학습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순 (2014). 청소년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소윤, 최성우 (2015). 초등 고학년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어머니의 촉진 경험 탐색: 고학력 어머니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1(3), 67-95.
- <https://doi.org/10.35637/klehrd.2015.11.3.003>
- 김순희 (2012). NIE 경험과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교과교육학연구, 16(3), 771-797.
- <https://doi.org/10.24231/rici.2012.16.3.771>

- 김연수, 이종한, 한영숙 (2008). 어머니의 학습 관여와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58-659.
- 김은지 (2017). 유아와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관련 변인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북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석, 심혜숙 (2009). 자기조절학습과 부모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전환기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수준. 상담학연구, 10(4), 2321-2333.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2321>
- 노대근 (2014). 초등 고학년생의 학습기술과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실 (2017).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가의 타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 (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서보미 (2020. 9. 11). 코로나 학습격차, 중위권이 없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231.html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용섭 (2020. 10. 26). 동대문구, 비대면 교육 성공의 열쇠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서울 포커스. <https://www.seoul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87794>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진희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6(1), 385-402.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1.017>
-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장수명 (2002).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질 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현수, 오경자 (2010). 사회적 지지가 빈곤계층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연령과 환경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73-689. <https://doi.org/10.18205/kpa.2010.15.4.007>
- 이미자, 문혁준 (2008). 교사-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및

-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9(1), 1-14.
- 이보람, 이강이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 지원현황: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63-78.
<https://doi.org/10.7466/JFBL.2021.39.2.63>
- 이상구 (2020. 10. 5). 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프레스리안*.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100511524581920#0DKW>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 이재신 (2009). 고등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연구*, 26(2), 277-295.
<https://doi.org/10.24211/tjkte.2009.26.2.277>
- 이정순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실 (2011). 부모 학습관여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성취목표가 학습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6), 377-406.
- 장지원 (2005).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참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옥 (2017).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군집 예측가능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희 (2020).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초등학교 무용 수업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무용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화, 김지영, 이현아, 이강이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모의 양육 수행 역량에 미치는 영향: 모의 부모-자녀 동일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2), 89-101.
<https://doi.org/10.5723/kjcs.2020.41.2.89>
- 정주영 (2017). 플립러닝 수업이 대학생의 자기주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215-235.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4.215>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https://doi.org/10.6115/fer.2020.032>
- 최성자 (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아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7(4), 193-219.
<https://doi.org/10.30761/ecoece.2018.17.4.193>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3), 317-332.
<https://doi.org/10.1007/BF02294359>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New York, NJ: Erlbaum.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LA, US: University of California.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NAEYC. (1998). *Guide to accreditation; NAEYC self-study validation accreditation*. Washington, DC: NAEYC.
- Nikken, P., & Jansz, J. (2014). Developing scales to measure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internet use.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9(2), 250-266.
<https://doi.org/10.1080/17439884.2013.782038>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Statistics*, 6(2), 461-464.
<https://doi.org/10.1214/aos/1176344136>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104_2

1 차원고접수 : 2021. 07. 09.
수정원고접수 : 2021. 08. 08.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Types of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Educational Support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Online Learning Situation of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eong, Eun Hwa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educational support in the online classe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of 1st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ccording to the types derived; and to identify whether teachers and fathers are influ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maternal typ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from 400 mothers who have 1st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Mplus 8.0 to compute for LPA,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PS) and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LIB) are divided into four types: stable (low PS - high LIB), struggling (high PS - LIB), common (moderate PS - LIB), and lethargic (high PS - low LIB). Second,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was highest in the stable type and lowest in the lethargic type. Third, the more active the communication with teachers and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 more likely the mother would be in the stable type.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mothers in children's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importance of teachers and fathers.

Keywords: self-directed learning, parenting stress,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communication with teachers,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